

# 칼빈의 기독교론

## 문 상 회

### 차 례

#### 머릿말

#### I. 그리스도의 품격

1. 증보자
2. 그리스도의 인간성
3. 그리스도의 신인양성

#### II. 그리스도의 사업

1. 그리스도의 삼중직무
2.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

#### 참고도서 목록

## —머릿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2권에 있어서 속죄론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론과 기독교론을 전개하고 있다. 제1장에서 제5장까지는 아담의 타락이래의 인류의 참상을 어거스틴의 원죄유전설에 의거하여 논술하고 있다. 인간의 전적부패와 무능, 자유의지를 상실한 가련한 노예가 된 인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실존을 역설하였다. 제6장 이하 제17장까지는 속죄의 본질에 관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있어서 증보자로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신의 역사에 관하여 논술하였다.

따라서 제1부는 그의 인간론이요 제2부는 그의 기독교론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2장 이하를 기초로 한 것이다. 참고삼아 제12장 이하의 제목을 열거하겠다.

제12장 중보자의 직분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지않으면 안되신 그리스도

제13장 그리스도의 참인간성

제14장 어떻게 이성품이 중보자의 품격을 구성하는가

제15장 예언자, 왕; 제사가 된 그리스도의 삼직

제16장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여 우리들의 구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구주로서의 직분을 완수하였는가? 그리스도의 사, 부활, 승천

제17장 그리스도는 참으로 신의 은총과 구원을 우리들을 위하여 획득하였는가?

이 논문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그의 견해를 요약한 것임을 부기한다.

## I. 그리스도의 품격

### 1. 중보자

칼빈(Calvin)은 말하기를 「우리의 중보자가 참 신이며 참 인간이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중대한 일이다. 이 필요한 우리가 보통적으로 말하는 단순한 또는 절대적 필요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근거하는 신이 결정하신바 필요한 것이다. 즉 은총의 신이 결정하신 우리들을 위한 최선이다. 우리들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들을 구름과 같이 격리하여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게한다」<sup>1)</sup>고 하였다. 아담(Adam)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전적으로 도덕적 부패를 계승한 인류는 죄의 완전한 노예이며 자력으로서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근원이다. 전인류는 필연적으로 그의 부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sup>2)</sup> 그런고로 「아담의 자손도 천사도 그것은(중보자 없이 신에게 가는것) 불가능하다. 하나님자신이 왕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망이다」<sup>3)</sup> 실로 인류는 신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 죄값으로 마땅히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죄인이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Immanuel)이 되어 신성과 인성이 일치결합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1) Calvin. J: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 12 : 1

2) Calvin: *Ibid.*, II, 1 : 6

3) Calvin: *Ibid.*, II, 12 : 1

신이 인간인 우리들과 동거할 소망과 화친력은 너무나 약하다. 신의 완전 선과 우리의 오염사이에 불화가 큰 것이다<sup>4)</sup> 이와같이 죄로 말미암아 신과 대립된 인간은 여하한 방법에 있어서도 신과 화해할 수 없다. 「가령 인간은 오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접근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천한 존재인 것이다」<sup>5)</sup> 「중보자가 수행할 임무는 우리를 신의 자애에 회복시키고 인간의 아들로 신의 아들로, 지옥의 상속자를 천국의 상속자로 하는 것이다」<sup>6)</sup> 이와같은 일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인간의 아들된자가 아니면 능히 행할수 없는 것이다. 「그는 우리와 같이 되는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동시에 인간의 아들이 되시었다. “나는 나의 아버지 즉 너희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와의 거룩한 형제관계를 의미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확실히 천국의 유업을 소유하게 된다. 그 이유는 우리를 그의 형제로 채용한 신자에게만 천국의 유업이 속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되면은 그 유업에 대하여 우리는 당연히 공동상속자(Co-heirs)가 될 것이다」<sup>7)</sup> 「자녀가 된 즉 후사가 되어 곧 하나님의 후사라 그리스도로 더불어 후사가 되나니 만일 그와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지니라」(롬 8 : 17)는 말씀은 죄인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중보자가 되는 길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주장한다. 「죄를 삼키는 구주의 직분은 생명 그 자체이신 분외에는 능히 완성할 자 없고 죄를 정복하는 그 직분 의 그 자체이신 분 외에는 능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권능만이 지상과 천상의 모든 권세를 타파할 수 있다」<sup>8)</sup>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신이 결정하신 것이요 신의 은총이다. 실로 「자비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인격속에 있어서 구주가 되었다」<sup>9)</sup> 「하나님과의 화해의 다른길을 자기의 불순에 의하여 자신을 타락케 한 인간이 순종함으로써 그의 상태를 회복하여 신의 의를 만족하여 죄의 벌을 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우리 주는 참 사람으로써 나타나 아담의 인격과 그의 이름을 취하여 그의 대리로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려고 신의 의의 충족의 대가로서 생명을 버리고 같은 육체에 있어서 우리가 범한 죄의 벌을 받았다.

4) Calvin: *Ibid.*, II, 12 : 1

5) Calvin: *Ibid.*, II, 12 : 1

6) Calvin: *Ibid.*, II, 12 : 2

7) Calvin: *Ibid.*, II, 12 : 2

8) Calvin: *Ibid.*, II, 12 : 2

9) Calvin: *Ibid.*, II, 12 : 2

신에게는 죽음이 없고 사람에게는 죽음을 정복할 힘이 없으므로 그는 신성과 인성을 자신에 있어서 통일하여 사람으로서는 죄의 벌을, 신으로서는 죄에 대한 승리를 획득하였다…… 그는 육에 있어서 죄와 사를 멸하여 그의 승리와 개가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육체를 희생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들의 죄책을 속하고 소멸하여 아버지의 정당한 진노를 유화하셨다<sup>10)</sup> 이와같이 칼빈에 의하면 신과의 화해에 있어서 중보자인 예수는 그 자신은 죄가 없으며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인류가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사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형벌이라고 칼빈은 생각하였다. 또 칼빈은 이 사업은 신성과 인간성을 가진자만이 완성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서 신성 또는 인성을 제거하는 것은 그의 위엄과 영광을 제거하든가 또는 그의 선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이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신성을 제거하여도 인간성을 제거하여도 아니된다. 신성만으로도 속죄는 불가능하고 인성으로 만도 속죄는 불가능하다. 신인양성의 일차에 서만 속죄는 가능하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바울이 말한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피로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으니 이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얻은 것이며」(엡 1:7) 「그리스도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다」(딤후 1:15) 부룬넬(Brunner)은 기독교는 유일한 중보자를 가진 종교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칼빈이 그리스도라 신과 인간사이의 중보자임을 강조함은 성서적 진리를 밝힌 것이라 하겠다.

## 2. 그리스도의 인간성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13장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을 받은 후 어떻게 중보자의 직무를 완성하였는가를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마니파(Manishean)와 마루키온파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전개하고 있다.

예수의 인성의 실제성을 고래로 마니파와 마루키온파가 반대하여 왔다. 칼빈에 의하면 마니파는 그리스도가 천체(celestical body)를 가졌다고 하고 마루키온파는 그리스도는 육체가 아니고 환영(visionary phantom)을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한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인간성과 역사성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허다하고도 유력한 성서의 증거에 배타된다. 즉 은총의 약속은 하늘 자손(heavenly seed)나 환영적인 인간(phantom of man)이 아니고 아브라함 야곱의 자손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된 것이다」<sup>11)</sup> 하

10) Calvin: *Ibid.*, II, 12:3

나눔은 역사세계내의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따라서 그가 이 약속을 수행하려면 이 역사세계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바울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심이니 육신으로 말한즉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셨고」(롬 1: 3) 또 「열조는 저희 조상이요 육신으로 말하면 저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셨으니 저는 곧 만물위에 계셔서 세계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시니라」(롬 9: 5)고 그리스도의 인간적 실재성을 승인하고 있다. 또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를 인자라고 하신것은 그의 참 인간성을 더 명백히 선언한 것이다. 「기약이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니 곧 여인에게로 부터 율법아래 나시고」(갈 4: 4) 「그는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한가지 속하고」 「그런고로 그가 마땅히 범사에 형제들과 같으시니」 「대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자…」(히 2: 14, 17; 4: 15) 등의 구절은 모두 예수의 역사적 실재성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육에 있어서 정죄하였다」(롬 8: 3) 이와같이 성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마루키온은 그리스도는 참 육체가 아니고 한 환영을 받았다고 상상한다. 그 이유는 「오히려 자기몸을 비어 종의 형상을 취하여 사람의 형체를 이루었으니 이미 사람의 모양이 있으며」 빌 2: 7, 8)라고 바울이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란 이 구절을 저들은 바울이 마치 그리스도의 인성적 확실성을 부정한 것이나 된 것으로 오해하였다.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 마루키온은 이 장구에 있는 바울의 목적을 전적으로 묵과했다. 이는 그리스도가 취한 육체의 성질이 아니고 그 신성을 비친한 인간의 상태에서 표시하기 위함이었다」<sup>2)</sup>고 칼빈이 해석한 것은 정당하다. 「육체에서 죽고 영으로……」(벧전 3: 18)라는 구절도 역시 그리스도의 인간적 실재성을 말하는 동시에 인간적 약점을 말하는 것이다. 칼빈은 「만일 이와같은 인간적 약점이 그리스도에 있어서 무시되었다면 무의미하다」<sup>3)</sup>고 말하여 그는 인간이 된 그리스도의 인간적 약점을 철저히 승인하고 있다.

그런데 마루키온은 성서에 「제2의 아담(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온자라」(고전 15: 47)이라 하였으니 그리스도를 공환체(aerial body)라고 생각하였으나 칼빈은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우리의 생명을 혼상하는 영적 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천적 유형적 본질(a celestial corporeal essenes)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정통주의적

1) Calvin: *Ibid.*, II, 13: 1

2) Calvin: *Ibid.*, II, 13: 2

3) Calvin: *Ibid.*, II, 13: 2

교리에 의하면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마루키온파들은 그리스도가 아부라함의 후손, 다윗의 몸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는 단 한사람 즉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이다」(갈 3 : 16 참조) 또 저들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한것은 다만 약속된 때에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바울은 “육에 의하면 이라고 첨가하여 그의 인간성을 명백히 확인하고 있다고 칼빈은 해석한다. 또 그에 의하면 「저들은 (마루키온파등) 마태복음서의 족보를 요셉의 것이지 마리아의 족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다 다윗의 가계다」<sup>4)</sup> 따라서 그리스도는 육에 있어서는 아담의 가계에 속한다고 주장하여 칼빈은 마루키온파들의 그리스도의 인성부정론을 배격하였다. 칼빈은 구원의 필수조건으로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로 「구원하는 자와 구원을 받는 자와의 성의 일치에 있어서 비로소 구원이 실현되는 것이다」(히 2 : 10, 11, 14)<sup>5)</sup>

마루키온파들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족보를 취하였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불명예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죄 밑에 있는 아담의 전후손은 예외없이 이 우주적 법칙에서 제외될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바울에게서 발견되는 반응을 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롬 5 : 12, 15)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고전 15 : 47)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죄 없는 육의 형상으로 보냄을 받은(롬 8 : 3) 특이한 무죄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남성과의 상관없이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무죄였다고 하는것은 아니다. 그는 성령에 의하여 성별되었기 때문이다」<sup>6)</sup>

이상과 같이 칼빈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재성을 부정하는 주장에 반대하여 그리스도의 사적 확실성을 철저히 인정하는 동시에 그의 인간적 약점까지 철저히 승인한다. 그러나 칼빈은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성서적으로 승인한다. 그렇게 하여 칼빈은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 신앙임을 밝히는 동

4) Calvin: *Ibid.*, II, 13 : 3

5) Calvin: *Ibid.*, II, 12 : 1

6) Calvin: *Ibid.*, II, 13 : 4

시에 기독교계시가 역사적 계시임을 밝혔다.

### 3. 그리스도의 두 성품(신인양성)

「말씀이 육이 되었다」고 말할때 이는 말씀이 육으로 변경되었다거나 또는 육과 융합한것과 같이 이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말씀은 그의 거처를 위한 성소로서 처녀의 태를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또 사람의 아들이 되신것은 본질의 혼동이 아니고 인격의 통일로서 행하신 것이다. 신성과 인성의 관련과 통일은 각종의 특질을 완전히 보지하며 또한 양자가 하나의 그리스도를 형성한 것이다」<sup>1)</sup> 칼빈은 이상과 같은 사실 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하등의 모순없이 조화통일되고 있는 사실을 실증하기 위하여 인간을 열거하였다. 「만일 인간에 있어서의 그 무엇이 이 위대한 신비에 흡사한것이 있다면 가장 적절한 유례를 제공하는 것은 인간자신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확실히 두가지 본질로서 성립되고 양자는 모순없이 일치한다. 즉 영혼은 육체가 아니고 육체는 영혼이 아니다. 이 두 부분으로서 성립된 인간은 한 사람이다. 이 두 상이한 성품이 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람에 있어서 결합되었다. 이와같이 성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있어서 통일하신 분이다. 그는 단순한 신도 인간도 아니다. 그는 신인이다. 그는 갈릴리의 역사적 실제의 인물 예수인 동시에 대망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칼빈은 그의 인성을 신성에 종속시켜도 아니되고 그의 신성을 인성에 종속시켜도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신인 양성은 서로 배타적인것이 아니고 양자로서 성립된 복합품격(Complexed person)으로서 관련되고 있다」<sup>2)</sup> 「그리스도는 복합품격 즉 신성과 인성으로서 형성된 중보자다」<sup>3)</sup> 이와같이 그리스도는 양성을 소유하신 존재임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인간성의 특질을 지지하든가 또는 그와 반대로 그의 인간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신성에 예속시키는 분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독교계시가 역사적 사건이면서 초역사적 사건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성질을 구별하느니 보다 오히려 분리시키려하는 네스토리

1) Calvin: *Ibid.*, II, 14 : 1

2) Calvin: *Ibid.*, II, 14 : 3

3) Calvin: *Ibid.*, II, 14 : 4

우스(Nestorius)의 오류에 대하여 조심하여야 한다. 칼빈에 의하면 저들은 이중 그리스도(double christ)를 생각한다. 또 유티케스(Euthyches)의 파오도 경계하여야 한다. 칼빈에 의하면 유티케스는 그리스도의 품격의 통일을 수립하려고 목적하다가 그리스도의 두 성품(nature)의 구별을 부정한다. 네스토리우스(Nestorius)가 에베소(Ephesus) 회의에서 저주된것 같이 유티케스(Euthyches)도 역시 그후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 회의와 칼케돈(Chalcedon) 회의에서 저주를 받았다.

성서는 분명히 양성을 긍정한다. 그런고로 「그리스도에 있어서의 양성을 혼동하는 일도 구별하는 일도 다 같이 오류인 것이다」<sup>4)</sup> 우리는 사도적 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처녀탄생하신 증보자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다」 그리스도는 단순한 관념적 존재나 하나님안에 존재한 어떤 의지도 아니다. 「그는 영원한 실재이며 본질적인 신이다. 그는 태초로부터 개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는 본질적 신으로서 역사세계에 돌입한 수육자였다. 그런고 「말씀이 육이 되었다」(요 1:14)는 구절은 양성이 일품격에 있어서 완전일치됨을 긍정하는 것이다.<sup>5)</sup> 이와같이 칼빈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품격에 있어서 모순없이 즉 일성의 타성침범 없이 조화 통일되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칼빈의 주장은 성서에 기초한 교회적 신조를 계승한 것이다.

## II. 그리스도의 사업

### 1. 그리스도의 삼중직무

#### A.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삼중의 직무(The threefold office)를 임명하셨다 한다. 즉 그리스도는 예언자직, 왕직, 제사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어 구원에 필요한 교훈과 훈련을 주셨고 경건한 사람들은 일심으로 메시아를 대망하여 왔다. 성서에 의하면 종교에 대한 참 지식이 없는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믿었다.(요한 4:25) 유대인들도 물론 그렇게 확신하였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이사야 55:4) 「대개 한 아해가 우리에게 남이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도다」(이사야 9:6) 또 신약에도 「옛적에 선지자들도 여러번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4) Calvin: *Ibid.*, II, 14:4

5) Calvin: *Ibid.*, II, 14:8에 의함.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히브리 1 : 1)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사업을 예언자들을 통하여 개시하였고 그리스도가 예언자직을 계승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이 세계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예언자의 직무는 중보자의 현현까지 기대하여 오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표적을 볼 수 없음이어 선지자가 다시 없고 우리중에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지 아는자가 없도다」(시 74 : 9)라는 탄성은 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이 왕직에 속한 것이다. 율법하에서는 제사와 왕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역시 성유 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메시아라는 유명한 이름이 약속된 중보자에게 부여된 것이다. 물론 왕직이 주된것이지만은 타2 직도 등한시하여서는 아니된다.<sup>1)</sup> 칼빈은 이와같이 그리스도의 삼중직무는 성서가 확증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사야에 의하면 메시아는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특히 아버지의 은혜의 선전자 또는 증인이다. (이사야 61 : 1, 2) 또 그 교훈의 완전에 의하여 그에 있어서 예언은 완성하였다. 그리스도는 구약예언의 완성자이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mt 17 : 5)는 천래의 음성은 그에게 특권과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 B.

그의 왕직은 그 정신적 성질을 이해함으로써 그 효력 이익 능력 영원성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아들에 있어서 교회의 영원한 지배자 방어자다. (시 9 : 35, 37) 실로 다윗왕조의 왕권은 없어지고 영원한 권능을 가진 그리스도에 의하여 비로소 교회의 영원성은 확보되고 또 영원한 왕인 아들에 대한 공격은 실패에 돌아간다. 「여호와께서 내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시 110 : 1)고 노래한 시편시인은 메시아는 영원한 왕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마귀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위에 건설한 교회를 멸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도 역시 이 왕권을 정신적으로 이해하여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요한 18 : 36)고 말씀하셨다. 또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통치권 즉 왕권이 예상되어 있다. 만일 하늘 왕의 치하에서 그 축복이 다만 지상에만 한정된다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생의 환희, 평안, 부, 안전 등은 모두 육적 욕구에 대한 만족에 불과하다. 이와같은 지상생 변영과 부의 풍부도 외적에 대한 강력한 방위에 의하여 초래되는 것이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심령의 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영적적의 공격에 대해서 힘을 부여하신다. 실로 「그는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1) Calvin: *Ibid.*, II, 15 : 2

지배하고 영의 선물을 주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각케 하며 같은 영에 의하여 우리로하여금 적에게 승리케 하신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고 「신국은 보이는 형상으로는 오지 아니한다」(누가 17:21, 22) 칼빈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인 영원한 나라이며 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주장하였다.<sup>2)</sup>

그런고로 그리스도의 왕권의 수유는 기쁨과 향료로 성립된 것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누가 9:20)라고 호칭되는 것은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임하기 때문이다.(이사야 11:2)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 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엡 1:20~23) 이와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권능을 주셔서 아들은 우리를 인도하여 생육하며 수호하신다. 실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만왕의 왕이다. 우리는 이 왕의 백성이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고전 8:6)<sup>3)</sup>

### C. 제사직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는 예언자직과 왕직이외에 또 제사직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업의 중심점이 속죄적 봉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사로서의 직무는 실로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제사직을 중심으로 볼 때에는 이 제사직의 목적과 역할을 성취하기 위하여 타2직은 필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제사로서의 직무에 관한 위대한 명제는 그것이 회생이라는 것이다. 우리를 대신한 회생이라는 것이다. 「그의 목적과 역사는 그가 순전무결한 증보자로서 그의 성결에 의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도록 하시는 것이다. 정의의 저주가 신에 대한 우리의 접근을 방해하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2) Calvin: *Ibid.*, II, 15:4에 의함

3) Calvin: *Ibid.*, II, 15:5에 의함

유화하고 우리가 그의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속죄의 간섭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고로 그리스도는 이 직분을 수행하였다. 희생으로서 나타나는것이 그에게는 필요하였다. 율법하에서는 제사는 피없이 지성소에 들어가는것이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중재자로서의 제사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속죄 없이는 하나님을 유화할수는 없는 것이다」<sup>4)</sup> 칼빈에 의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가 히브리인서 7장 이하 10장 끝절까지에서 크게 논하였다 한다. 히브리인서 기자는 제사로서의 존엄성은 독자적으로 그리스도에게만 귀속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자기의 죽음의 희생으로서 우리의 죄과를 소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제사의 속죄에 의한 성화 없이는 스스로 또는 자신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sup>5)</sup> 칼빈은 그리스도의 사는 인류의 죄악에 대한 희생이요 구약적 의미에 있어서 제물이었다고 생각하였다. 실로 십자가의 사뿐만 아니라 수옥사건 그 자체가 속죄적 의미를 가진 신의 사건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죄없는 자기자신들 신의 두전에 희생의 제물로 바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체사를 완수하였다. 영원한 중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 참 제사적이 완성된 것이다. 칼빈은 이 사실에 대한 바울 사도의 고백을 인용하였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3: 25~26)

## 2.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그의 죽음, 부활, 승천)

「우리가 이때까지 그리스도에 관하여 추진해온 모든것은 우리 자신에 있어서 저주받고 죽고 멸망된 자이며 그리스도에 있어서 의와 해방과 생명과 구원을 발견한 자라는 점에 관련되고 있다」<sup>6)</sup> 칼빈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는 인간의 비참한 실존과 그리스도의 인격 그 직무에 대하여 논술하여 왔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사와 부활과 승천이 무엇을 의미하며 속죄론적 여하한 의의를 가지는 사건인가를 논술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여 속죄적 구원을 완성하셨는가를 진술하고 있다.

실로 우리는 자기를 검토하여 볼때 스스로 신의 진노 죄책을 또 신의 저주하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내에 신을 유화하며

4) Calvin: *Ibid.*, II, 15 : 6

5) Calvin: *Ibid.*, II, 15 : 6

1) Calvin: *Ibid.*, II, 16 : 1

만족시킬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이다」<sup>2)</sup> 그러므로 베드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사 4 : 12)고 말하였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속자이다.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를 화해시킬 때까지 우리는 신의 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성령은 성서에 의하여 우리에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할때까지 신의 적이며 그의 희생에 의하여 구속될 때까지 저 주아래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몸에 의하여 하나님과 융합함을 회복할 때까지 신에게 이탈되었던 것이다」<sup>3)</sup> 실로 인간은 그리스도의 중보적 속죄없이 신전에 접근할 수 없는 절망적 존재자이다. 「완전 공의이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죄악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증오를 받기에 합당한 것을 우리 자신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부패한 성질과 우리의 생활의 계속적인 부패에 관하여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실제로 반항하고 그의 현전에서 범죄하고 지옥의 저주 밑에서 출생하였다」

이와같이 칼빈은 인간은 절망이라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창조물인 것 . 우리는 스스로 사망을 자취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가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한 그는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수한 사랑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책을 제거하신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에 있어서 우리들의 화해에 선행하는 것이다. 그가 후에 우리와 자기를 화해케 하는것은 그가 먼저 사랑하기 때문이다」<sup>4)</sup> 그러므로 속죄사업은 신의 주권행사이며 신의 성애의 은사인 것이다. 인간에 있어서의 불가능은 신에 있어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죄악에 어떻게 대답하였으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제거하였는가? 어떻게 신과 인간사이의 적의를 파멸하였는가? 어떻게 신을 유화하여 그 불화를 제거하였는가?

칼빈은 이것을 그리스도 자신의 복종의 전과정을 통하여 완성하셨다는 것이다. 즉 신의 절대주권에 순응하여 그 의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서

2) Calvin: *Ibid.*, II, 16 : 1

3) Calvin: *Ibid.*, II, 16 : 2

4) Calvin: *Ibid.*, II, 16 : 4에 의함

완성하였다고 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못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못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롬 5 : 19)는 바울의 말을 칼빈은 증언으로 인용하고 있다. 개술한 바와 같이 칼빈은 그리스도의 전생애는 신의 완전복종이라고 이해하여 신과 인간의 불화를 화해케 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종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칼빈은 그리스도가 여인에게서 출생함도 세례를 받음도 하나님의 명령에의 복종에 의하여 의를 성취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하였다. (갈 4 : 4, 5 마태 3 : 15)

요약하면 종의 인격을 입었을 때 부터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석방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선언하기를 「자기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마태 20 : 28) 하셨고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전 15 : 3)고 말씀하였고 요한복음서 기자도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한 1 : 29)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없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시었고」 그에 의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롬 3 : 24, 25)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롬 5 : 9, 10)

사도신경에는 그의 탄생과 사와 부활의 연관이 완전한 구원의 총화를 이룬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복종은 전생애를 통한것이였다. (빌 2 : 7, 8) 그의 복종은 자발적 복종이였다. 그렇지 아니하면 희생도 의롭다 함을 얻을 가치가 없다. 주님 자신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요한 10 : 15, 18)고 직언하여 그의 자발적 절대복종의 태도를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빌라도 앞에서의 단죄는 우리가 저야할 저주된 벌이 의로운 그에게 부가된 것임을 나타낸다. 「그의 죽임은 우리들의 벌에 해당하는 동시에 죄의 속함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강도나 반란에 의한 사로서는 무의미하다. 「그는 죄인으로서 법정에서 정식으로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므로 의인, 무죄자로서의 사가 아니고 죄에 의한 죽임이였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자신의 죄 때문애가 아님은 당시의 재판자인 빌라도도 인정하고 있다. (마태 27 : 18, 23, 24, 요한 18 : 38)

만일 그리스도 자신이 죄가 있는 존재라면은 그는 대속은 제물이 될 수 없고 우리들의 구원을 완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실로 「우리들의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경하고 불경한 인간앞에서까지도 단죄받기 위하여 복종하신 것이다」<sup>5)</sup> 「그가 받은 주검의 특수성은 특별한 신비를 가지고 있다.

5) Calvin: *Ibid.*, II, 16 : 5

사람들의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하여서도 십자가는 저주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그는 자신을 이 저주에 내어 주었다」<sup>6)</sup>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제물」(이사야 53 : 10)이 되어 완전한 구속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죄책과 형벌은 그에게 전가되어 우리들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바울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 : 21)고 말하여 이 사실을 밝힌 것이다. 「실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들의 사신과 무지와 부정을 짊어지시고 그의 순결로서 우리들을 입혀주신다」<sup>7)</sup>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희생이 아니라면 그가 우리들의 구속(고전 1 : 30) 속전(디모데전 2 : 6) 화육제물(롬 3 : 25)이라는 확신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인 동시에 우리들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세반인 것이다.

그는 우리를 속전하는 죽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주검에 자신을 맡기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검을 맛보려 하시」었다.(히 2 : 9) 그리스도는 자기의 주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죽음을 면케 하여 생명을 회복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는 달리 우리들을 살필려고 하는 죽임을 멸하기 위하여 자감히 사망에 이기기 위하여 자신을 넘겨 주었다. 「우리들을 위협하고 정복하여 패망케 한 사망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하여 자기를 사망에 넘긴 것이다」 사망의 힘을 주장하는 자 「악마를 죽임으로서 멸망하고 사망의 공포로 말미암아 종생노예가 된 자를 해방하기 위함이었다.(히 2 : 14, 15)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해서 그와같이 우리를 죽게 하신다.(골 3 : 3)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망에 의하여 사망의 속전에서 구원을 얻고 우리들의 육을 죽이는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한다.<sup>8)</sup>

사도신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었다」 이와같이 우리 기독교신앙은 그리스도의 부활사실을 신앙한다. 모든 복음서는 부활을 증거하고 모든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었다.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죽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즉 죽음에 삼킨바 되었다면 그의 속죄는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칼빈이 말하는 것은 정당한 파악이다. 실로 부활 없이는 속죄의 대사업은 불완전하다.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주검으로 완성

6) Calvin: *Ibid.*, II, 16 : 6

7) Calvin: *Ibid.*, II, 16 : 6

8) Calvin: *Ibid.*, II, 16 : 7

되어 신과 화해하고 저주는 지양되고 죄벌은 보유되어도 우리를 거둬나게 하며 산 소망을 가지게 하는것은 그의 죽음이 아니고 죽은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즉 부활이라고 칼빈은 강조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둬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르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것이라」고 베드로도 이 사실을 감격하고 있는 것이다.(벧전 1: 34)

「그의 부활에 있어서 그는 정복자로 나타났다」 부활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부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확증을 받게 된 것이다. 실로 부활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건이었다. 우리들의 신앙은 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였다. 바울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 나셨다」(롬 4: 25)라고 증언한다. 즉 죄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제거되고 의는 그 부활에 의하여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칼빈은 반문한다.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할려는 그 자신이 주검의 능력하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 자신이 패망하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수 있겠는가?」 실로 주검의 승리자만이 주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실로 우리들의 구원은 반은 그의 주검에서, 반은 그의 부활에 속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은 그의 사와 부활에 의한 것임을 성서는 반복하여 주장한다.(롬 1: 4, 고후 13: 4, 빌 2: 10 벧전 1: 21)<sup>9)</sup> 칼빈은 말한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은 그 부활에서 비로소 나타났다 그의 승천은 그의 지배의 시작이라」 하였다.<sup>10)</sup> 칼빈은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의를 논하여 「승천에 의하여 신앙은 많은 이익을 얻는다. 제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닫기운 천국에의 길이 다시 열리었다」<sup>11)</sup>고 말하였다. 즉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들이 천국으로 들어갈수 있따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라 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만 하늘에의 소망을 가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머리되신 주에 있어서 그것을 소유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한다.<sup>12)</sup> 즉 그리스도의 승천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9) Calvin: *Ibid.*, II, 16 : 13

10) Calvin: *Ibid.*, II, 16 : 14

11) Calvin: *Ibid.*, II, 16 : 16

12) Calvin: *Ibid.*, II, 16 : 16



### 참 고 도 서

1. John Calvin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949(Eng. Tran by John Allen) WM. B. Eedmans Publishing Co., Grand Rapids.
2. Kerr, M. T. : A Compend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y John Calvin, 1939 Presbyterian Board of Christian Education, Philadelphia.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